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 교과목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효과

정귀임¹, 이경수², 정하윤^{3*}

¹고신대학교 간호대학, ²경남도립거창대학 보건의료행정과, ^{3*}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a Introduction of nursing and Bioethics subject on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Kwuy-Im Jung¹, Kyung-Soo Lee², Ha-Yun Jung^{3*}

¹Dept.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²Dept. of Health&Medical Administration, GyeongNam Provincial Geochang College

^{3*}Dep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Received September 09, 2016; Received September 17, 2016; Accepted September 28, 2016)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introduction of nursing and bioethics subject on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104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March 3 to June 17, 2016. The research was done in a one group pretest-posttest for a quasi-experimental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and paired t-test using the SPSS 21.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pre and post in the nurse image($t=-6.15$,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t=53.92$, $p<.001$).

Conclusions. We strongly recommend using introduction of nursing and bioethics subject to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And, in future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urriculum and teaching strategies for improving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Nurse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jsy760809@hanmail.net

1. 서론

우리나라 간호대 신입생들은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 정책에 따라 2008년부터 5년간 해마다 1,000여 명씩 증원되어 왔다¹⁾. 반면에 간호교육을 이수한 신규간호사는 임상적응력이 부진하고 이직률은 전체간호사의 60%를 넘고 있다¹²⁾.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부분 간호현장에서 접하는 현실충격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²⁾. 그러므로 간호교육자는 현 상황을 살펴 간호교육의 질적인 제고에 비중을 두고 간호 실무에 적합한 전문직 일반간호사 양성 방안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간호교육자들은 그들에게 간호전문직관이 기본적인 자질로 요구되며, 간호교육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간호이미지의 구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³⁾⁻⁷⁾.

간호이미지는 사람이 간호에 대하여 갖는 신념, 생각, 관념 및 인상의 종합이며 태도를 형성하는 요소이다⁸⁾. 간호대 신입생들은 대중매체나 각자의 경험 혹은 체험에 의해 형성된 간호 이미지에 국한되거나 고착화되는 경향이 크다. 이는 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는 동안 점차적으로 간호에 대한 관점이변화하기 때문에 간호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⁹⁾¹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미국에서 칼리시와 칼리시가 1980년대 초 대중매체 혹은 소설속의 간호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시대에 따라 자비의 천사, 충실한 하녀, 영웅 같은 여성, 어머니 등 희생과 봉사의 측면이 강조된 전통적인 이미지로 명명함으로써 구분하였다¹¹⁾. 또한 여성들만의 직업적인관점에서 성적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간호의 전문적 상황이 반영된 현대의 직업인 등으로 구분하였다¹¹⁾. Bridge¹²⁾는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간호의 이미지를 봉사하는 천사 같은 이미지, 전부의 이미지, 인정 없는 고약한 이미지, 의사들의 보조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는 성별 고정관념, 의사의 보조역할, 제한된 승진 기회, 낮은

임금 등 이었다⁶⁾¹³⁾¹⁴⁾. 간호대 신입생들에게는 대중매체에 의하여 하얀 가운을 입고 의사를 보조하는 것¹⁵⁾, 로맨틱하고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⁶⁾ 등으로 인식되었다. Natan⁶⁾은 이러한 고정관념에 의해 간호는 여성스러운 전문직이라고 표현하였고, 간호 이미지에 대한 선입견에 따라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므로¹⁶⁾, 보다 더 높은 전문직 이미지와 동기부여를 통해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⁶⁾¹⁷⁾.

국내의 경우 Jeong & Kang¹⁸⁾은 간호이미지 변화가 간호전문직 발전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였고¹⁹⁾, 간호사들은 간호에 대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보다 의사역할을 보조하는 백의의 천사, 희생과 봉사, 복종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³⁾: 간호대 학생들은 간호란 작고 하찮은 것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며⁵⁾, 간호수행의 독자성 부족, 의사의 보조역할, 낮은 승진기회, 낮은 사회적 지위 등 간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³⁾⁴⁾⁵⁾¹⁹⁾, 간호전문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⁴⁾⁷⁾⁹⁾¹⁹⁾.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남학생들의 간호대학 지원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¹⁰⁾. 이에 대해 Lee¹⁰⁾는 남자간호대학생의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을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간호전문직관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Cho & Song²⁰⁾은 간호학생을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인격을 지닌 전문직간호사로 양성하려면 기초 간호교육과정을 통하여 간호에 대한 이념, 철학, 개념 및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의 전문직 간호이미지에 대한 의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현장경험 혹은 체험학습을 통한 내면화 교육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강의주입식 교수-학습방법을 지양하고 관련 교과목 속에서 다양한 매체나 롤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간호이미지가 체득될 수 있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열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학습

이 요구된다¹⁰⁾.

따라서 간호대 신입생들이 간호교육을 받기 전 경험으로 체득된 간호이미지와 간호교육을 통해 변화된 간호이미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 결과 간호이미지는 조사연구 혹은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⁶⁾⁹⁾²¹⁾.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 교과목 수강이 간호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간호교육과정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B광역시 소재 일 간호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입문과 생명윤리 교과목 수강 전후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 입문과 생명윤리 교과목 수강 전과 후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제 특성별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 교과목 수강 전과 후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간호사이미지(Nurse Image)

이미지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갖는 신념, 태도 및 인상의 총체로 정의된다¹⁾. 본 연구에서는 Park¹⁾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3.2. 간호전문직관(Nursing Professionalism)

간호전문성을 통해 개인적 만족 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다¹⁰⁾. 본 연구에서는 Yeun, Kwon과 Ahn²²⁾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연구방법

4.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교과목 수강이 일개 간호대학 신입생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원시유사실험 연구이며, 연구설계는 다음과 같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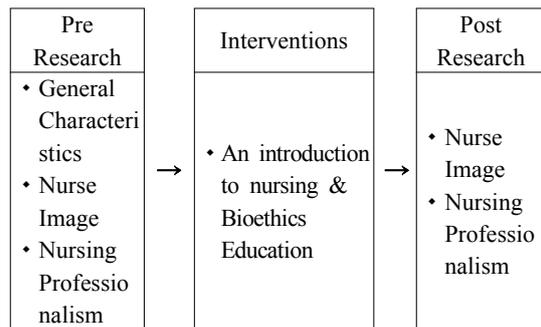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Design

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3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B광역시 소재 일개 간호대학 신입생 중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는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실험연구 참여를 구두로 허락하고 설문에 응답한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Faul, Erdfelder, Lang과 Buchner²³⁾의 G*Power version 3.1.2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power) .80, 중간효과크기(effect size) .30으로 설정할 때 요구되는 대상자수는 71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서면동의를 작성한 104명

전수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결과의 활용 등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에 대한 보장과 서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4.3. 연구도구

1) 간호사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Ward²⁵⁾가 간호사와 일반인들의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The Ward Image of Nurses Scale(WINS)을 Park¹⁾이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WINS는 각 문항이 2개의 반대개념을 가진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이며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영역은 돌봄 6문항, 지식 8문항, 자율성 7문항, 태도 5문항, 행동 8문항, 모습 1문항이다. 각 문항은 의미분별척도로서 1점(부정)에서 7점(긍정)이며, 의미의 배열이 반대인 경우(긍정-부정)에는 역산처리를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이미지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돌봄 영역 Cronbach's $\alpha=0.91$, 지식 영역 Cronbach's $\alpha=0.90$, 자율성 영역 Cronbach's $\alpha=0.83$, 태도 영역 Cronbach's $\alpha=0.56$, 행동영역 Cronbach's $\alpha=0.85$ 이었다. 박선아(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돌봄 영역 Cronbach's $\alpha=0.82$, 지식 영역 Cronbach's $\alpha=0.82$, 자율성 영역 Cronbach's $\alpha=0.76$, 태도 영역 Cronbach's $\alpha=0.74$, 행동 영역 Cronbach's $\alpha=0.75$ 로 나타났다. 이미지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3$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돌봄 영역 Cronbach's $\alpha=0.60$, 지식 영역 Cronbach's $\alpha=0.77$, 자율성 영역 Cronbach's $\alpha=0.62$, 태도 영역 Cronbach's $\alpha=0.59$, 행동 영역 Cronbach's $\alpha=0.75$ 로 나타났다. 이미지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0$ 이었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eun, Kwon과

Ahn²²⁾이 개발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실무의 속성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인격, 태도, 자세 등 기본적인 자질을, 사회적 인식은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간호의 전문성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의 특성에 대한 견해를, 간호실무 역할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지각을, 그리고 간호의 독자성은 의료체계 내에서의 간호의 주체성, 독특성과 독립성을 의미한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²³⁾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0$ 이었다.

4.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연구 참여 대상자를 보호하였다. 1주차와 13주차 때 학생을 대상으로 과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수업시간 외에 사전사후설문을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문제중심 기반 학습법을 활용한 UCC제작 과제수행은 3주차부터 수행하도록 하여 13주차에 발표를 하도록 하였으며, 중간고사 전, 중간고사기간, 중간고사 후 3주는 과제수행에서 제외하여 총 10주간 운영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신입생들의 간호학 전공교과목 수업 시작 전 2015년 3월 첫째주와 간호학 전공교과목 수업 종료 후 6월 둘째 주로써 각각 한 번에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을 2번에 걸쳐서 한 이유는 1차는 전공

교수의 간호에 대한 생각, 간호사 이미지나 간호전문직관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2차는 간호학 전공교과목 수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기간을 1학기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Cohen²⁵⁾은 간호학과학생들의 입학 동기가 대부분 희생과 봉사를 위한 인류애와 여성적인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감성적인 면에 집중되었으므로 긍정적인 간호이미지 즉 전문직관에 근거한 간호의 정체성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Oh 등(2005)이 간호학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변화가능하며 간호대학에서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한 교육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한 것과 교육을 통하여 12개월 이내에도 간호학생들의 간호와 돌봄에 대한 개념을 변화 시킬 수 있다고 발표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 교과목 수업 전·후를 본 연구기간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간호학 전공교과목 수업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학습성과 7 ‘간호전문직 표준의 이해와 확인’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K대학교 간호학과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간호학과 신입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된 교과목이다.

학습내용은 학습자의 간호의 본질, 간호철학, 간호이론, 동·서양의 간호역사와 한국의 간호역사, 간호윤리 순서로 구성하여 16주 동안 수행하였다. 학습방법은 주요개념 강의, 나이팅게일 혹은 기타 간호사, 선교사의 간호활동, 간호사 관련 신문기사읽기, 간호사 관련 영화감상 후 감상문쓰기, 팀 활동 간호윤리 상황극 UCC 제작발표, 대상자의 간호에 대한 로드맵 작성 등을 적용하였다.

4.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정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4.6. 윤리적 고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프로그램 진행과정, 시기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프로그램 참여 동안 실명은 부호화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생활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4.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은 원시실험 연구이므로 제 3변수 개입 등 외생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개 대학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학생에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

5. 결과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여자가 84.6%(88명), 남자는 15.4%(16명)이었고, 이들의 87.5%(91명)이 21세 미만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63.5%(66명)으로 절반이상 차지하였고, 최근 1년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6.2%(48명), 없는 경우는 53.9%(5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내 헌혈을 한 경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6.7%(59명)이 ‘있다’고 답하였고, 동아리는 ‘가지고 있다’가 90.4%(94명)이었다. 이들 중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19.2%(20명), ‘대체로 열심히 한다’ 60.6%(63명)이었

으며, 간호학에 대해 100%(104명)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선택동기는 높은 취업률 34.6%(36명), 부모 및 주변의 권유 22.1%(23명), 적성과 흥미 때문에 21.2%(22명), 봉사를 하기위해 14.4%(15명), 입시 성적을 고려하여 7.7%(8명)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Women	88	(84.6)
	Man	16	(15.4)
Age (years)	< 21	91	(87.5)
	≥ 21	13	(12.5)
Religion	No	33	(31.7)
	Christian	66	(63.5)
Hospitalization experience in less than one year	Catholic	5	(4.8)
	No heaven	56	(53.9)
Blood donation experience in less than one years	Have a experience	48	(46.2)
	No heaven	45	(43.3)
Joining of a club	Have a experience	59	(56.7)
	No	10	(9.6)
Be a member of a club (n=94)	Yes	94	(90.4)
	Almost not	5	(4.8)
	Formally	6	(5.8)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Generally	63	(60.6)
	Great	20	(19.2)
Selection motivation of Nursing department	Positive	87	(83.7)
	Too positively	17	(16.3)
Interest & Aptitude	Interest & Aptitude	22	(21.2)
	Consider grade	8	(7.7)
	Suggestion of surrounding	23	(22.1)
	Highest employment	36	(34.6)
Hope & Serve	15	(14.4)	

5.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이미지 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간호이미지는 대상자의 최근 1년 내 병원에 입원한 경험 유무, 최근 1년 내 헌혈을 해 본 경험 유무, 간호학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병원에 경험한 경험이 있는 경우(5.62±0.43점)가 경험이 없는 경우(5.45±0.43점)보다 간호이미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2.061, p=.042$), 최근 1년 내 헌혈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5.60±0.43점)가 없는 경우(5.43±0.43점)보다 간호이미지가 좋았다($t=-2.096, p=.039$). 간호학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경우(5.72±0.40점)가 긍정적인 편(5.49±0.43점)보다 간호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2.079, p=.04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종교, 최근 1년 내 헌혈 경험 유무, 동아리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는 경우’(2.15±0.36점)가 ‘가톨릭’인 경우(1.67±0.24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F=4.116, p=.019$), 최근 1년 내 헌혈 경험이 있는 경우(2.13±0.40점)가 없는 경우(1.96±0.36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t=-2.236, p=.028$). 동아리활동의 적극성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 참여하는 경우(2.26±0.36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1.97±0.39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3.267, p=.025$).

Table 2. Comparison of nurse image &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Nurse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Women	88	5.62±0.32	0.976	1.92±0.29	-1.309
	Man	16	5.51±0.45	(.331)	2.02±0.40	(.194)
Age (years)	< 21	91	5.53±0.45	0.083	2.03±0.40	-0.795
	≥ 21	13	5.52±0.31	(.934)	2.09±0.24	(.435)
Religion	Noa)	33	5.49±0.39	0.024	2.15±0.36	4.116
	Christianb) Catholicc)	66	5.55±0.46	(.816)	2.01±0.38	(.019*)
Hospitalization experience in less than one year	No heaven	56	5.45±0.43	-2.061	1.95±0.40	-2.199
	Have a experience	48	5.62±0.43	(.042*)	2.01±0.35	(.030)
Blood donation experience in less than one years	No heaven	45	5.43±0.43	-2.096	1.96±0.36	-2.236
	Have a experience	59	5.60±0.43	(.039*)	2.13±0.40	(.028*)
Joining of a club	No	10	5.64±0.46	0.0853	2.00±0.40	-0.304
	Yes	94	5.51±0.43	(.396)	2.04±0.38	(.762)
Be a member of a club (n=91)	Almost not ^{a)}	5	5.27±0.47	1.234	2.23±0.32	3.267
	Formally ^{b)}	6	5.72±0.16	(.302)	1.97±0.15	(.025*)
	Generally ^{c)}	63	5.50±0.43		1.99±0.39	(a>c)
	Great ^{d)}	20	5.58±0.47		2.26±0.36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Positive	87	5.49±0.43	-2.079	1.97±0.40	-0.746
	Too positively	17	5.72±0.40	(.040)	2.05±0.38	(.457)
Selection motivation of Nursing department	Interest & Aptitude	22	5.54±0.37	1.874	2.08±0.35	2.277
	Consider grade	8	5.25±0.72	(.121)	2.14±0.51	(.066)
	Suggestion of surrounding	23	5.45±0.43		2.19±0.32	
	Highest employment	36	5.55±0.40		1.95±0.40	
	Hope & Serve	15	5.73±0.36		1.88±0.33	

*p<.05, **p<.01, ***p<.001

5.3. 대상자의 실험처치 전·후 간호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대상자의 실험처치 전·후 간호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 교과목 수강 후 간호이미지는 6개의 하위영역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6.15, p<.001), 간호전문직관은 5개의 하위영역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53.92, p<.001).

Table 3. Nurse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experimental group (N=104)

Categories	pretest	posttest	t/F	p
	M±SD	M±SD		
Nurse Image	5.53±0.43	6.16±0.36	-6.15	<.001
Care	5.84±0.54	6.26±0.45	-13.94	<.001
Knowledge	5.71±0.55	6.35±0.43	-16.86	<.001
Atonomy	5.26±0.53	5.89±0.40	-18.68	<.001
Attitude	5.42±0.59	6.15±0.35	-17.30	<.001
Activity	5.29±0.55	6.03±0.80	-8.04	<.001
Figure	6.40±0.73	6.76±0.57	-6.15	<.001
Nursing Professionalism	2.04±0.38	4.00±0.35	-53.92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1.89±0.44	3.81±0.51	-20.98	<.001
Social Recognitions	2.39±0.58	4.26±0.37	-38.76	<.001
Professional of nursing	1.80±0.44	3.85±0.47	-34.89	<.001
Attributes of nursing practice	1.95±0.48	3.97±0.47	-39.50	<.001
Independent of nursing	2.31±0.66	4.13±0.51	-34.42	<.001

*p<.05, **p<.01, ***p<.001

6.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 교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나타나는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긍정적인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간호학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고,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간호대학 신입생들에게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교과목을 적용시킨 결과 간호이미지가 실험처치 전 5.53±0.43점, 실험처치 후 6.16±0.3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t=-6.15, p<.001). 또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이 실험처치 전 2.04±0.38점, 실험처치 후 4.00 ±0.35점으로 간호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53.92, p<.001).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라는 간호학 정규교과목 수강이 실험처치라는 점에서 대조군 확보의 어려움이 인한 연구 설계의 제한점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대조군을 확보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 관련 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윤리적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Kim²⁷⁾의 연구 결과 사례기반 및 문제중심학습 방법 등을 이용한 혼합학습프로그램으로 간호윤리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윤리교육이 생명윤리의식과 비판적사고성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Yoo와 park²⁸⁾의 연구결과 간호윤리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대상자와 다양한 실험처치가 행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명 또는 간호윤리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나 의식에 뚜렷하고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점이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현장에서 인간의 생명을 돌보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숙지하고 긍정적인 간호이미지와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²⁷⁾²⁸⁾. 간호대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돌보아야 할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간호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짐으로써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 간호학 교육과정에 간호윤리나 생명윤리와 같은 교과목을 개설, 개편하거나 다양한 콘텐츠와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성된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을 알아보고,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 교과목이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긍정적인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간호학 교육과정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단일군 사전사후 원시유사실험 연구이다. 자료수집과 실험처치는 2016년 3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B광역시 소재 일개 간호대학의 1학년 학생 104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 신입생의 간호학입문과 생명윤리교과목 수강 전·후 간호이미지의 차이는 6개 하위영역(돌봄, 지식, 자율성, 태도, 행동, 모습)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6.15, p<.001$).

둘째, 간호전문직관 또한 5개 하위영역(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의 속성, 간호의 독자성)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53.92, p<.001$).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와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조군을 할당하지 않은 원시유사실험 연구이자, 단일군 전후 설계로, 실험처치의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또한 학습자의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점수 향상이 간호학입문 및 윤리교과목 수강에 의한 것인지 시간 경과에 따른 성숙의 효과인지 확인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설계 등 다양한 실험설계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B광역시 소재의 일개 간호대학의 1학년 학생이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타지역 및

다양한 학제의 대상자가 포함된 반복연구 및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간호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간호학 교육과정을 검토, 개선하고, 다학제간 협력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상의 다양한 방안들을 적용하여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간호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확립된다면 대학생들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 향상은 물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바람직한 이미지를 지닌 건강한 예비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Park BH. Evaluation of Policy related to Expansion of Hospital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eoul. 2012.
2. Yun HM.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New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Busan. 2009.
3. Choi J, & Ha NS.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09;15(1):54-63.
4. Jeong HS, & Yoo YS.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10;24(1):29-38.
5. Kim MS, Lee SH, & Kim SY. The Meaning of Nursing in the Freshmen of Nursing School. *Qualitative Research*. 2002;3(2):1-9.
6. Natan MB. Effects of Nursing Education on the Image of Nursing as a Professional in Israel.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2009;6(1): 1-13.
7. Oh DJ, Choi AJ, Kwon BE, & Park YH.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Education*. 2005;11(1):64-72.
8. Yun EJ. A Study on Professional Nursing Image of Nursing Unit Manager: Q-methodology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of Seoul. 1995.
9. Ham YS.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of Incheon. 2011.
10. Lee YS. An Analysis of the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ased on Delphi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Seoul. 2011.
11. Go MS, Gang IH, Kim TS, Min S, Park JS, & Yeom Y et al. Introduction to Nursing Science. (Rev. 3rd ed.). Paju: Soomoonsa. 2011.
12. Bridges JM. Literature Review on the Images of the Nurse and Nursing in the Med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0; 15:850-854.
13. Gordon S. Nursing needs a New Imag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010;57(4): 403-404.
14. Jane S. More than a Makeover is needed to improve Nursing's Ima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6;54(3):259-260.
15. Roberts DW, & Vasquez E. Power: An Application the Nursing Image and Advanced Practice. *AACN Clinical Issues*. 2004;15:196-204.
16. Spouse J. An Impossible Dream Images of Nursing held by Preregistration students and Their Effect on Sustaining Motivation to become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0;32:730-739.

17. Morris-Thompson T, Shepherd J, Plata RR, & Marks-Maran D. Diversity, Fulfilment and Privilege: The Image of Nursing.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2011;19(5):683-692.
18. Kim BH, Kim KJ, Park IS, Lee KJ, Kim JK, Hong JJ, et al.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9;29(6):1208-1219.
19. Park KA, & Song MR.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Imag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1;31(4):584-597.
20. Cho KJ, & Song MR. Formation and Changing Pattern of Nursing Perspectiv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997;3(1):17-35.
21. Tzeng HM. Testing a Conceptual Model of the Image of Nursing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06;43(6):755-765.
22. Yeun EJ, Kwon YM, &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23.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 Power 3: A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39(2):175-191.
24. Ward J.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and nurses' perception of the image of nurses [dissertation]. Chester City: Widener University. 2006.p.1-143.
25. Cohen HA. The Nurse's quest for a Professional Identity. California: Addison-Wesley. 1991.
26. Kim SD.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program on ethic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20(5):567-575.
27. Yoo YS, Park HS.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ethics Awarenes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f Nurses.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2010;11(1):51-50.